청천벽력 대(對) 임마누엘

(이사야 36:1~22)

1. 히스기야 왕 십사 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3.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 내가 말하노니 네가 족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21.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청천벽력 대(對)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청천벽력 대(對) 임마누엘'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오시는 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과 소식을 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남편이 풀이 죽어 들어왔기에 왜 그러냐고 다그쳤더니, 15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집니다.
10억짜리 계약건만 철썩 같이 믿고 빚을 내가며 공장을 돌려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지받았습니다.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웬 말입니까?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고 삶은 유린당하고 피폐해집니다. 이제 뒷수습을 하고 그 여파

의 노예가 되어서 지치고 힘든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뜻밖의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방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비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앗수르의 2차 침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앗수르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앗수르의 1차 침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서야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평화약조를 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약조를 하고 돌아간 산헤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깨뜨리고 재차 침입을 해옵니다. 남 유다의 46개 성읍이 파죽지세로 점령당하고 온 국토는 유린당합니다. 아직 1차 침입 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국토가 황폐케 되고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차 침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침공이었습니다. 막대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다고 여기던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민들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조공을 바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서 이루어 낸 끝과 내 머리로 만들어낸 결말은 실제로는 끝도 결말도 아닙니다. 선민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고 매듭지어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은 분화의 때를 기다리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내 손으로 결말을 내려고 할 때에 청천벽력의 확률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쳐서 산헤립과 평화약조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스스로 결말을 내려고 한다면 청천벽력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우리는 앞서 2차 침입의 결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뻗거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백성들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심으로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이 자멸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건은 매듭을 지으십니다.
한편 이러한 일이 일어나던 도중 산헤립의 군대를 이끌던 랍사게 장군은 유다의 사신들과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조롱하며 유다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까지 와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직 북 왕국이 망하지 않았을 때에 아람과 연합하여 남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때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다 장차 침입할 앗수르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켜주실 것을 예언하며 그 확증의 표시로써 임마누엘을 언급한 자리가 바로 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백성들을 도발하고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왕 시절에 이사야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과 청천벽력이 한 자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청천벽력을 맞이한 선민은 선택해야 합니다. 청천벽력이 언급된 자리에서 또한 임마누엘이 선언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민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며 또한 시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쌍방 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함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에게서는 나타날 수조차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임마누엘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선민은 청천벽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앗수르의 침공과 같은 청천벽력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할 태도는 함께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대단한 청천벽력의 사건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는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 자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임마누엘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기로 작정한 히스기야 왕의 결심입니다.

1차 침공 때에는 애굽에게 손을 벌려서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는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처로서 '잠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잠잠함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선민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화가 난 바로가 모든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쇄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며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13~14절을 보면 이때에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잠잠하기, 가만히 서서 보기, 가만히 있기가 하나님이 선민과 함께 하시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리고 성 공략 때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선민의 침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침묵이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7살 미만의 아들 삼형제가 있는 가정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하도 쿵쿵대고 뛰어다니니 아래층에 살던 할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서 올라왔습니다. 이때에 마침 퇴근한 아빠가 이 할아버지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사건의 주범인 아이들은 아빠 뒤에 숨어서 아빠의 바지를 붙들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아래층 할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선민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군대를 맞대면하는 상황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들의 특징은 잠잠하기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은 할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아빠이십니다. 여리고 성과 하나님이 맞대면하는 상황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민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앗수르의 산헤립과 랍사게 장군의 십팔만 오천 명은 성난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일은 내가 벌렸지만 십팔만 오천의 대군을 맞대면하신 분은 내가 아닌 아빠이신 하나님입니다. 선민은 잠잠하게 있으면 됩니다.
내 몸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상이 생겼습니다. 건강문제가 성난 할아버지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빠이신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생긴 청천벽력 같은 건강문제를 하나님께서 맞대면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할 일은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이 나서시는 상황을 바라 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삼형제가 아빠 앞에 나선다고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뭔데 그래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아빠가 하는 일은 삼형제를 말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잠잠히 아빠가 하는 일을 보고 있었다면 모든 일이 원만하

게 해결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꼬마들이 나서서 할아버지와 싸우려한다면 먼저 아빠의 훈계에 직면하고 맙니다. 아빠의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삼형제를 꾸짖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내가 싸우면서 아빠에게 내 편을 들라고 요구합니다. 선민들에게 청천벽력이 주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 문제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선 나를 훈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것이 반복되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청천벽력은 대부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좋은 청천벽력의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청천벽력만은 좋은 청천벽력입니다. 삶에 청천벽력이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좋은 청천벽력을 통해 나쁜 청천벽력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좋은 청천벽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번제단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고하는 이 소식이 바로 단 하나의 좋은 청천벽력입니다.
세상의 사건들이 나쁜 청천벽력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들어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몰아내는 유일한 좋은 청천벽력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다는데 무엇이 이보다 큰 사건일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란 사업 도산의 위기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더 큰 청천벽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업의 문제를 더 크게 여깁니다.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 사건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나쁜 청천벽력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민이 되기를 훈계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대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한 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응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채로 끝나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청천벽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

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움직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계속해서 청천벽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일회성의 결단과 신앙고백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내 삶에서 지속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바라봄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큰 청천벽력은 없습니다. 어떤 청천벽력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청천벽력은 믿으면서도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은 믿지 않습니다. 이때에 돈 없는 청천벽력, 건강문제의 청천벽력, 자식문제의 청천벽력, 직장문제의 청천벽력 등의 청천벽력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려하고 하나님도 한 방편과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활성화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계속해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보내실 것입니다.

삶에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삼형제가 아빠 뒤에서 바지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좋은 청천벽력을 믿음으로써 삶에 대해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이러한 사건들은 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청천벽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이 청천벽력을 유지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입을 여시면 말하게 될 것이고, 나의 손을 움직이시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청천벽력 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활성화를 통하여 세상의 나쁜 청천벽력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죽었다는 좋은 청천벽력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좋은 청천벽력이 마음을 지배하는 은총 중의 최고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